

광주 충효분교 어린이들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전교생 37명 뮤지컬 '난타' 관람

학교 풍물반에서 활동하는 김지원(광주동초교 충효분교 6년)·랑(4년) 자매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한 선물을 받아서다. 지원 양 등 충효분교 전교생 37명은 24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난타'를 관람한다.

충효분교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준 이는 바로 엄마들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시에 속하지만 담양 가사문화관 인근에 위치한 충효분교는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어려운 농촌 지역에 속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체험은 가끔 진행되기도 하지만 만만찮은 티켓값 때문에 서울 유명 공

엄마들 휴경지 농사 수익금으로 티켓 구입 "사물놀이 배우는 아이들에 큰 도움 될 것"

연 관람은 어린이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였다.

지난해 마을 휴경지에 농사를 짓고 수익금으로 어린이책을 구입, 학교에 기증했던 엄마들은 올해 "어린이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준다"는 목표를 갖고 일년 동안 구슬땀을 흘렸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터라 짬을 내기 어려웠지만 엄마들은 심심일만 힘을 모았다. 모란을 옮

길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을 거들었고, 여름날 땀방아래서 김매기를 할 때면 시원한 음료수나 맛난 새참을 들고 오는 주민들도 있었다. 공은주(45)씨 등 엄마들은 마침 '난타' 공연이 광주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들은 다른 어떤 작품보다 '난타'를 꼭 보여주고 싶어했다. 충효분교 전교생들은 모두 풍물을 배우고 있는 터라 사물놀이 리듬을 바탕으로 한 '난타' 공연이 어린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올해 농사를 지어 얻은 수익금은 100만원. 하지만 한 사람당 4만원~5만5천원에 이르는 티켓값으로는 부족했다. '엄마 정신, 아줌마 정신'으로 무장한 공씨는 "어린이들이 좋은 공연을 볼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일단 '난타'를 주최하는 광주 MBC 운영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약 MBC측에서 찬색을 표한다면, '난타' 제작자인 송승환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할 작정이었다.

다행히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한 광주 MBC 운영관 사장은 대폭 할인 가격에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배



전교생 37명이 풍물놀이를 배우고 있는 충효분교 어린이들이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 <충효분교 제공>

려했고 엄마들까지 모두 60명이 공연을 관람하게 됐다. "진짜 멋진 공연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경찰의 특별한 봉사

광주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뺑소니 및 교통사고 피해 가족들에게 위문품 등을 전달하는 등 특별한 봉사활동에 나서 훈훈함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직원들은 19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김모(여·8)양 집을 방문, 50만원의 위문금과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기초수급 대상자인 김양의 아버지는 2000년 8월 교통사고를 당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광주지역 5개 경찰서도 이날 뺑

소니 등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자녀 세대를 방문, 30만~50만원씩의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서 조사했던 교통사고 피해자 중 집안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선정해 이들을 위로했다.

지난 18일에는 광주경찰청 기동 82중대 대원 20명이 서구 쌍촌동 노인 무료요양시설인 '민음의 집'을 찾아 김장김치 준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지난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삼거동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인 '소화성가정'과 홀로 사는 노

뺑소니 피해자 찾아 위문금·위문품 전달

인들을 찾아가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경찰은 1사 1촌 자매결연 중인 광산구 용곡마을에서 배추를 사다가 양념을 직접 버무렸으며 시설자 중 집안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도 도왔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주변 소외되기 쉬운 시설 및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속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실천, 따뜻한 경찰상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휴일 광주·전남 3~5cm 눈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한 차례 비가 온 뒤, 흐리고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보돼 농산물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휴일 내린 눈으로 인해 월요일인 22일 출근길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20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뒤 점차 벗어나겠다"며 "흐리고 아침 한때 비가 조금 내린 후 점차 개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내다 봤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도~6도, 낮 최고기온은 7도~11도로 예상

됐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고 전망했다.

휴일인 21일 광주·전남지역에는 3~5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더 떨어진 영하 2도~4도, 낮 최고기온은 4도~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1일에 시작된 눈은 22일 오전까지 이어져 많은 눈이 오겠다"며 "이날 눈은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예보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능 결과 빠른 교사 금품 수수 여부 수사

수능결과 분석자료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자료를 빠른 울산의 조모 교사와 이를 넘겨받은 학원 관계자들 사이에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 교사로부터 팩스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D 학원 등 3군데 입시학원 관계자들의 통장을 임의 제출받아 조씨에게 자료 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수능성적 발표 이전인 지난 8일 울산시 교육청에서 물려 자료를 들고 나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학원 관계자들은 "정보교환 차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6분 해질 17시 24분 달돋이 00시 46분 달짐 12시 35분

동지축 나누는 맛 흐리고 아침 한때 비가 조금 내린 후 점차 개겠다.

지역	최저/최고
광주	4/8
목포	6/8
여수	6/10
완주	4/9
구례	1/8
해남	3/10
장흥	2/10
고흥	4/11
순천	1/8
영광	4/8
진도	5/10
전주	4/7
남원	3/6
옥산도	8/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최저/최고	0/6	-4/2	-5/4	-1/7	-2/6	-2/6

무등산 서석·입석대 시민의 품으로

관망대 설치·탐방로 정비 8개월만에 개방

천연기념물 제465호인 광주의 명물, 무등산 정상 일대 서석대와 입석대의 주상절리대가 8개월여만인 20일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또 관망대와 목재 데크로드가 설치되고 탐방로가 정비되는 등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탐방을 위한 정비사업도 완료됐다.

광주시는 주상절리대 정비를 이유로 지난 4월 15일부터 주상절리대 출입을 전면 통제해왔다.

주상절리대 정비사업으로 서석대와 입석대 주변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서석대와 입석대에 34m와 30m 규모의 목재 관망대가 설치됐다. 관망대가 설치됨에 따라 주상절리대 경관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게됐고, 암

체시민들에 의한 훼손도 막게됐다. 울퉁불퉁한 돌과 흙으로 된 서석대 상부에는 목재 데크로드(75m)가 설치됐다.

주요 지점에는 또 안내판과 해설판 15점이 설치돼 '이야기가 있는 탐방길'로 조성됐다. 주말에는 문화 해설사 1명이 이 구간에 고정 배치된다.

유실되고 훼손된 기존의 탐방로는 돌과 나무를 이용한 1.5m 폭의 자연 친화형 전통 옛길로 복원됐다.

탐방로 코스로 개선됐다. 입석대에서 서석대를 거쳐 다시 입석대로 내려와야 했던 동선을 조정해 입석대~서석대~중봉삼거리로 연결되는 순환동선이 개설됐다. 눈·비가 올때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중봉삼거리

길은 계단식으로 개선됐다. 또 서석대와 군부대 간에 설치된 길이 520m의 철조망도 철거됐다.

임희진 무등산 관리사무소 소장은 "서석대와 입석대가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더하고 광주의 명물로 손색이 없도록 정비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일단 개방 이후 한달동안은 안전사고와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탐방이 제한된다. 이후 탐방객 이용 실태를 조사한 뒤 필요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31일 밤과 1월 1일 새벽에는 24시간 개방해 시민들이 새해 햇살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다움의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책장 및 상담반영

▶ 서울본사 : 02-3445-0943 ▶ 광주광진 : 061-337-0571

강진 실종녀 숨진채 발견

19일 오후 3시께 강진군 농수로에서 최근 실종된 A(43·여)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15일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나흘 동안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A씨의 시신에서는 특별한 의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비롯해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입원 환자 잇단 자살

병원 2곳 숨진채 발견

광주에서 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잇따라 자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오후 1시10분께 광주시 동구 모 대학병원 1동 5층 옥상에 진폐증 환자 B(45)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겨져 있는 것을 병원관계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긴 채 투신한 B씨는 진폐증으로 최근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같은 건물 10층 입원실에서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0분께에는 북구 H병원에서 C(여·26)씨가 압박붕대로 목을 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안현주·이종희기자 ahj@

가수 이재원씨 성폭행 논란 곤욕



○5인조 아이돌그룹 H.O.T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가수 이재원(28·사진)씨가 성폭행 논란에 휩싸여 곤욕.

○서울성동경찰청은 19일 인기그룹 H.O.T. 멤버였던 이재원씨에 대해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준강간) 혐의로 사건구속영장을 신청.

○최근 모 가수 지망생을 함께할 수 상태에 빠진 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원씨는 조사에서 "강압적인 성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씨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연합뉴스



무등산 서석대·입석대 주상절리대가 8개월만인 20일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무등산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새로 설치된 서석대 관망대에서 광주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개방을 하루 앞둔 19일 언론에 공개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故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유족 노 前대통령 '명예훼손' 고소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과 2명의 자녀 및 남동생 5명 등 유족들은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남 전 사장이 연인파 관련인 인사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준 사실, 노건평 씨를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거나 돈을

준 사실이 있는데도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남 전 사장)를 4차례 거론하며 이를 사실인 양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허려 당시 노 씨 및 그의 처 남인 민경찬 씨 등으로부터 사장 연임을 도와주겠다면서 공사수수료와 병

원 공사를 요구받는 등의 청탁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현금 3천만원을 준 것을 민 씨 측이 노 씨에게 컷을 뽀"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벌 불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남 전 사장은 이 기자회견 몇 시간 뒤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